한국수소연합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5.7.3. 한국수소연합 경영지원실 -

◇ 매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, 국내·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

Ⅰ. 국내

□ 산업계

○ **글로벌 수소 동맹 떴다…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, 수소 모빌리티로 EU 운송 혁신 주도**('25.7.2. 글로벌이코노믹)

- 현대차, BMW, 혼다, 토요타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 '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연합'이 유럽에서 공식 출범해, 수소를 EU 무공해 운송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정책 실행과 시장 확대를 추진하기로 함
- 이 연합은 수소와 배터리 기술의 병행을 통해 인프라 비용 절감과 운송·에너지 전반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며, 현대차 등 한국 기업의 글로벌 수소 시장 리더십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

○ **현대차, 재생에너지 사용 30%↑…폐차 재활용 소재 신차 적용** ('25.7.1. 뉴스1)

- 현대차는 2025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전년 대비 30% 확대하고, 폐차 재활용 소재를 신차에 적용하는 등 자원순환과 ESG 경영을 강화한 성과와 전략을 공개함
- 수소전기 기술을 승용차, 트럭, 버스뿐 아니라 선박, 발전, 항공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, 검증된 연료전지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있음
-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는 수소가 모빌리티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함

○ **포스코, 수소환원제철 전력 확보 위해 '월성1호기 운영권' 확보 추진** **('25.7.2. 에너지경제)**

- 포스코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대규모 무탄소 전력 확보를 위해, 폐쇄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권을 확보해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
- 이는 민간기업이 원전을 직접 운영하고 전력을 직거래(PPA)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, 전력시장 구조와 에너지 정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음

○ **선보공업, 통합법인 'SB선보' 출범…"글로벌 친환경에너지 솔루션 기업 도약"('25.7.2. 서울신문)**

- 선보공업·선보유니텍·선보하이텍 ·선보피스 4개 법인이 통합해 출범한 SB선보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본격적인 도약을 선언함
- SB선보는 탄소 포집부터 저장, 재활용, 친환경 연료 및 수소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'한국형 통합 탈탄소 밸류체인'을 구축하여 정부·기업 간 긴밀한 협력과 전략적 오픈이노베이션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힘

□ 지자체

○ **전북형 수소 실증사업 시동…'RE100 수소분과' 정기회의 개최** **('25.7.1. 전북일보)**

- 전북특별자치도는 수소산업의 도약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하고, 'RE100 얼라이언스 수소분과 정기회의'를 열어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산업단지 등 다양한 신사업 과제의 사업화 방안을 논의함
- 수소산업 연구개발부터 실증·상용화까지 아우르는 인프라를 강화해 그린에너지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임

○ 경북도, 내년부터 원전·수소 투자펀드 운용…500억 규모('25.7.2. 뉴시스)

- 경북도는 내년부터 500억 원 규모의 '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'를 운용해 원자력·수소 산업과 SMR(소형모듈원자로) 시장 성장에 대응할 계획임
- 이 펀드는 국비와 한수원, 지자체, 민간 등이 출자해 조성되며, 원자력·수소 생태계 구축과 민간주도 산업 전환의 마중물이 될 전망임

○ 제주 그린수소버스 이어 섬식정류장서도 콘서트('25.7.2. 연합뉴스)

- 제주도는 대중교통을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는 '그린수소버스 콘서트'를 이달부터 섬식정류장까지 확대해 하반기부터는 주 5회 운영하기로 함
- 탑승객들의 높은 만족도와 공연 장소 확대 요구에 따른 조치로,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

□ 연구계

○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에 김상현 연세대 교수…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 ('25.7.2. 조선비즈)

- 김상현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유기성 폐자원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연속 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7월 '이달의 과학기술인상'을 수상함
- 이 기술은 기존 바이오수소 생산 공정의 한계를 극복해 친환경 수소 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Ⅱ. 해외

□ 글로벌 정책 동향

○ **독일 LEAG, 박스베르크 수소발전소 계획 정치·경제 여건으로 보류**
(Fuel Cells Works, 25.6.27)

- 독일 루사티아 지역 에너지 기업 LEAG는 박스베르크에 조성 예정이던 110MW급 그린수소 발전소(H2UB) 개발을 정치적 불확실성과 시장 미성숙을 이유로 전면 보류한다고 발표함
- 본 프로젝트는 기존 석탄 발전소 2기를 철거한 부지를 활용해 동부 독일 최대 수소 에너지 허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, 10MW로 시작해 최대 500MW까지 확장 가능한 구조였음
- LEAG는 EU '공정전환기금(Just Transition Fund)'으로부터 약 5,800만 유로의 보조금을 확보했으나, 관련 법률 미비와 연방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수소 관련 자금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며, 반환 의무 또한 없음
- 사업 연기의 핵심 배경은 독일 연방정부의 '발전소 안전법'*이 연정 붕괴로 무기한 표류하게 되면서 수소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및 법적 기반이 불확실해졌기 때문
  * Power Plant Safety Act: 독일 연방정부가 수소 발전소 등 차세대 발전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해 추진한 법안
- LEAG는 향후 수소 대신 자사 노천탄광 부지*에 풍력·태양광을 확대하고, 대규모 배터리 저장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에너지 전환 전략을 재생에너지 기반 중심으로 수정하고 있음
  * 노천탄광 부지: 지표면을 파내 석탄을 채굴한 장소로, 채굴 종료 후 재생 에너지 용지로 활용됨
- 이는 같은 지역의 Envia 같은 에너지 기업도 최근 수소 투자를 철회한 사례와 유사하며, 동부 독일 내 수소 시장 전개에 대한 구조적 불안정성을 보여줌

□ 글로벌 산업 동향

○ 호주 퀸즐랜드 125억달러 규모 대형 그린수소 프로젝트 전격 중단

(SkyNews, 25.6.30)

- 호주 퀸즐랜드에서 추진되던 125억 달러 규모의 대형 그린수소 프로젝트 'Central Queensland Hydrogen Project(CQ-H2)'가 주정부의 지원 철회와 투자 유치 실패로 공식 중단됨
- 해당 프로젝트는 '18년 주정부 산하 Stanwell Corporation*이 일본 간사이 전력공사 등 해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작함
  * Stanwell Corporation: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가 소유한 에너지 공기업으로, 전력 생산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주요 발전회사
  * 간사이 전력공사: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간사이 지역(오사카, 교토, 고베 등)에 전력을 공급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력회사
- '28년까지 일 200톤, 2031년까지 일 800톤의 액화 그린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며 90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 유치, 145억 달러의 수출 수익, 89억 달러의 지역경제 기여가 기대됐음
- '24년 2월, 새로 들어선 퀸즐랜드 주정부가 16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거부하며 사업이 좌초됨
- 이후 '24년 11월 간사이 전력공사는 생산비용 급등을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이탈했고, Stanwell은 신규 투자자 유치에 실패해 '25년 6월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철수 및 관련 사업 중단을 발표함
- CQ-H2는 호주 최대의 그린수소 프로젝트이자 알바니즈 정부의 '넷제로' 및 'Future Made in Australia' 정책의 핵심 사업이었으나, 이번 중단으로 호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수소산업 육성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
  cf) 실제로 호주에서는 2019년 이후 100여 개의 수소 프로젝트가 발표됐으나, 이 중 61개가 '보류' 또는 '취소'로 전환됐고, 대다수 프로젝트가 개념 또는 승인 단계에서 더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